

2017학년도 제 2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년 1월 2일(월) 16:00~18:3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정현식 (위원장)
윤권석 (기획예산팀장)
이도행 (학교법인 법무감사팀 공인회계사)
김천일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정진성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김종혁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원석 (주간MBA 원우회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불참위원 : 양미경 (학생문화처장)
- 배 석 : 김남진(간사)

1. 등록금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 설명

- 위원장이 주요 대학 계열별 등록금을 설명함
- 2017학년도 가예산을 설명함.
- 수지차액 10억 적자에 따라 0.9%의 등록금 인상 요인이 있음을 설명함.

2. 등록금 심의 관련 위원 발언 및 질의응답

김창배(외부위원)

기부금 수입 증가 근거가 있는지. 디테일한 근거가 필요함. 동문의 기부금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

정현식(위원장)

장학기부금 매년 비슷함. 일반적으로 총장 임기초에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됨.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기부금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관련 지출도 집행하지 않음.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겠음.

이도행(법인추천위원)

법인 전입금 수입과 관련하여, 비정상적 발생한 금액이 3.9억, 법정부담금 약 11억. 총 약 14.7억 1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 2017년은 거의 17~18억으로 유사하게 될 것.

김창배(외부위원)

내년 예산의 목표가 반영돼야 할 것.

정현식(위원장)

금년은 총장이 교체되는 시기라, 새 총장의 목표나 새로운 사업은 아직 미반영. 기본 운영 경비만 반영된 상태. 새로운 사업이나 목표가 생기면, 매칭되는 수입 재원을 마련 추정편성할 것. 현재로서는 현상 유지를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김창배(외부위원)

명예퇴직 승인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어든건지.

정현식(위원장)

잔여기간에 따른 명예퇴직금과 신입직원 채용에 따른 마이너스 금액이 우려된다는 이사회 지적에 따라, 제도 재정비를 검토중임. 지난 이사회에서도 교원 명예퇴직 안건이 상정조차 안됨.

김창배(외부위원)

홍보비는 얼마정도 증가하는지.

정현식(위원장)

새 총장 취임에 따라 약 1.5억 정도.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코어 사업이 반영이 안돼있는데. 지출측면도 똑같이 늘어나는지.

정현식(위원장)

수입과 지출 같이 늘어나서 수지에 영향을 안미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교원임용계획에 국고사업도 반영이 돼있는지.

정현식(위원장)

계획에 포함되어있음. 현재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코어사업에서 저희가 심화트랙이나 학교자체계획으로 신청한게 있을텐데, 그럼 비전임교원 임용계획 같은 부분에서 코어사업 등이 반영되어있는지.

정현식(위원장)

반영돼있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코어 사업계획서를 낼 때 교원 충원계획이 포함돼있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그럼 수입이 지금 숫자보다 높아져야 하는게 아닌지.

정현식(위원장)

국고 지원 수입 들어온 만큼 지출도 늘어남.

윤권석(기획예산팀장)

코어사업 연차평가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짐. 그 금액에 맞춰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함. 금액이 확정되면 부서에서 신청할 예정임.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논문심사비, 입학금 내년 인상계획은 없는지.

정현식(위원장)

논문 심사비는 아직 얘기된 바 없고, 각 대학원 자율 책정됨. 외부 심사위원 섭외 등이 어려워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논의된 바 없음. 입학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윤권석(기획예산팀장)

등록금 총 수입에 입학금도 같이 계산됨.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우리학교 입학금이 5순위로 타 사립대학보다 높은편임.

정현식(위원장)

대학마다 편차가 있고, 대개 학교 평판도와 비슷한 순서로 보임.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입학금 제도를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시, 석사에서 박사 진학시 계속 내고 있음.

정현식(위원장)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음. 국립대학 기성회비가 폐지된 것과 비슷함. 차후 입법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아직 논의되지 않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등록금 수입이 학부는 증가, 대학원은 감소하는데 장학금 변동이 많지 않은데 왜 그런 것인지.

정현식(위원장)

학부는 국가장학금이 걸려 있어 교내장학금 비율을 낮출 수 없음. 전년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예산을 편성함. 대학원은 예전부터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일반대학원이 중요하니 대략 등록금 수입의 절반정도를 장학금으로 편성함.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유지하게끔 편성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등록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장학금이 많이 안 줄었음.

정현식(위원장)

줄어드는 등록금의 대부분이 전문대학원에서 줄어들기 때문임. 경영전문대학원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전문, 특수대학원은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충원율이 줄어들고 있음.

김창배(외부위원)

임의기금에서 수입은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임의기금 지출은 적립금을 쌓는 개념인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기존의 적립금을 꺼내서 쓰는 것이 기금인출이라고 보면 됨.

정현식(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은 학교에서 간접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함. 운영 흑자가 생겨서 적립을 하는 것이 임의기금 지출로 잡힘.

윤권석(기획예산팀장)

발전후원 기금이 늘어난 것은 기부금 수입 증가와 대응된다고 보면 됨. 국제문화교육원이나 특수 과정에서 당해연도 운영하고 남은 것을 차후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을 하는 것.

이도행(법인추천위원)

복식부기로 보면 일반 회사는 대변 기부금수입과 차변 현금이 되는데, 이 차변이 임의기금 적립으로 보시면 되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대변에 잡히는 것이 기금인출 수입으로 보면 될 것임.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자금예산서상 조교인건비가 왜 없는지.

정현식(위원장)

우리학교는 직원 조교가 없음. 재무회계 규칙에 항목이 있어서 표시되긴 했으나 우리학교는 해당 사항 없음.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직원 상여금은 무엇인지.

정현식(위원장)

본봉이 형식상으로 나뉘진 것으로 본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요청한 자료 중 재단 관련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

이도행(법인추천위원)

요청한 자료가 5년간 이사회 의사록, 재정개선계획서임. 제출은 어려움. 이사회 의사록먼저 말씀드리면 의무기간에 공시를 하고 있고 이후에는 별도 청구절차를 통해서 의사록을 해당 청구인한테 공개할 수 있음. 이사회 의사록에는 예결산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있고, 이 부분은 학생들이 요청을 하셨으니 원본을 열람을 하시되, 반출은 어려움. 두번째 재정여건 개선 계획서는 교비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부족분을 승인신청할 때 교육부에서 참고로 보는 자료임. 12억 전출금 중 예수회에서 8억 기부금 매칭하고 법인에서 4억을 부담함. 유지 가능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은 아니고, 출자금하고 유동자금 일부를 매칭시켜 전출하는 금액임. 법정부담금 관련 재정계획에 따라서도 12억을 맞출 여력은 없음. 현재 교육부에서 심사중이고, 열람해드리겠습니다.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2013년 기사를 보면 법정전입금을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비에서 지출한 것이 있다고 나오는데, 어찌 된 것인지.

이도행(법인추천위원)

교육부에서 2013년 법인 부담금 보전 15억을 하도록 명령이 내려옴. 몇 년에 걸쳐 경상비로 내려 보내고 있고 현재 약 4.8억이 남아있음. 승인절차가 없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법인의 부담 여력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자료가 제출되어 여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었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법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과정을 설명하자면, 서강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설립당시보다 부담금을 내야하는 인원과 부담률이 올라감. 대략 연 50억을 부담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생각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당시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들었음.

이도행(법인추천위원)

12년 법정부담금 추가 전출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연도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합리적인 이의제기 사유가 있었음에도 전출명령을 철회하지 않아 현재 별도 분납 스케줄에 따라 전출하고 있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2~3억씩 경상비로 매년 받고 있음.

이도행(법인추천위원)

현재 심사중인 12억은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게끔 돼있음. 12억 전출금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김창배(외부위원)

정부의 입장은 능력 없으면 재단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재단은 알아서 벌어서 책무를 다하라는 것임. 학교 돈 쓰지 말고. 과거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맞는 말씀임. 하지만 법적으로 학교에서 재단으로 돈이 올라갈 수는 없음. 재단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함.

이도행(법인추천위원)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평균적으로 50%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법인이 많지 않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책무를 회피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님.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교육부에 승인 받을 때 재정여건 개선계획 5개년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획이 제출되었는지.

이도행(법인추천위원)

3개년치 계획을 제출하고 있고 이행실적 점검을 함. 보셔도 큰 의미는 없으실 것. 부끄럽지만 그 계획대로 실행하더라도 12억을 맞추기 힘들.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인 12억을 전출하고자 함.

정현식(위원장)

재정계획은 더 많이 전출하기로 계획하고는, 그보다 적게 전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재단은 무리를 해서라도 더 많은 금액을 전출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자꾸 고용부담금 식으로 법정전입금 책정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은 사립학교가 이사회 위주로 되어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건 학생이 아니니까. 국립대처럼 재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학생 부담은 늘어감. 예를 들어 연금부담률이 높아져 리스크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용주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학생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학생의 권리증진이 있어야함. 전대, 전전대 총학생회도 학점제라든가 학생활동 관련된 규칙들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바뀌지 않고, 법인이 규정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능력의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학생들한테 맞춰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정현식(위원장)

중간에서 말씀을 드리면 법인에서 자료를 보시고, 학생들이 지난학기에 요구를 해서 법인이 약속을 한 것이 있고, 학생들은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얼마를 할 수 있는지는 법인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2016년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예산이 늘었음.

정현식(위원장)

2015년부터 업무추진비를 줄였는데, 확인해보겠음.

김창배(외부위원)

기부금과 기금인출적립에 대해 문의함.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기부 목적의 성격에 따라서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적절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함. 장기 프로젝트 목적의 기부금이라 차후에 사용되는 것이면 기금적립이 되는 것임.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예전 회의록을 보면, 남덕우 경제관 지어지면 김대건관을 산학협력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음.

정현식(위원장)

일단은 K관 일부 강의실을 한국어교육원 강의실로 사용할 계획임. 다산관에 있는 일부 행정팀을 이전할 수 있음. 산학협력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국제문화교육원의 기금으로 시설투자를 할 계획임. 한국어교육원 수입을 증대시켜서 그 일부로 학교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D관의 여유공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정현식(위원장)

현재 부족한 교수 연구실로 사용하려고 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쓰는 건물인 가브리엘관에는 휴게실이 전혀 없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현재는 계획이 없음.

정현식(위원장)

학교안에 휴게공간이 산재되어 있으며, 모든 건물마다 휴게공간을 만들기에는 공간이 없음.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리찌과학관은 이공계가 많이 사용해서 전기량 공급 부족 때문인지 전기가 나갈 때가 있다고 함.

정현식(위원장)

리찌과학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가 모자라서 전기가 꺼지는 경우는 못 겪어봤음. 다만 전기소요가 많은 장비의 경우 전기공사가 어려운 경우는 있음.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연구비가 2016년에 많이 줄었음.

정현식(위원장)

연구비나 연구비 신청에 따라 추경을 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건들이 많이 있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학생들로부터 요청을 많이 받는 것이 도서관구입비임.

정현식(위원장)

도서관구입비 자체는 큰 변동은 없으나,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 실제 도서관 관련해서는 조금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됨.

윤권석(기획예산팀장)

1인당 도서관구입비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 산학협력단 지원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함. 도서관에 최대한 학술적인 자료를 구입하도록 요청을 함. 예산이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도서관에서 과거와 달리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음. 학생들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른 불만이 우려됨.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일부 DB는 어느정도 비용이 지출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출건수가 낮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김. 그런 것들을 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정현식(위원장)

좋은 지적임.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각 DB마다 사용 빈도 조사를 해서 많이 사용되는 DB 위주로 구입하고자 함. 예산이 무제한으로 확보되면 당연히 다 있는게 좋지만, 효율성을 감안하고자 함.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남진(간사)

대학원생 논문 게재료, 학술대회나 학술행사 참가에 따른 비용 등이 지원되고 있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보다 세부적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있음. 대표적인게 성평등 상담실임. 성평등 상담실이 현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정도 하고, 가해자 면담, 피해자 면담을 하는 등 세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맡는 문제가 생긴다고 함.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받았음.

정현식(위원장)

우리학교 성평등 상담실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음. 타 대학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함.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학교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예산이 충분하면 인력도 늘려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현재 자료만 보고는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없음.

정현식(위원장)

가예산에서 세부항목의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예산과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현재는 큰 틀의 숫자를 보여주는 것임.

김창배(외부위원)

신청 예산의 합이 저 숫자가 아닌지. 각 단위별로 세부내역을 봐야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음.

정현식(위원장)

실무자 선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자료로 제공하기에는 양이 방대함. 말했다시피, 세부항목별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현식(위원장)

처음엔 사업별로 예산을 조정해보려 했으나, 업무량도 만만치 않고 각 단위별 저항이 극심했음. 총액 기준으로 배분하되, 장학금 보전, 도서관 예산은 보전 등의 큰 원칙만 제시함. 용역비 같이 무조건 줄일 수 만은 없는 항목들을 고려해가며 전체적으로 감축해서 편성함. 그 총액 안에서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구조임.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해마다 나오는 얘기로, 수학과에서는 실험실습비에 대해 수공이 안 된다는 입장임. 2014년 회의록을 보면까 장기적으로 분리해서 따로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하였음.

정현식(위원장)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의 차이를 실험실습비 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교수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음. 학교 설립 기준에 있어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은 교수1인당 학생 수, 학생1인당 면적 기준이 다 다름. 공학이 제일 기준이 높고 인문사회가 기준이 낮음. 실험실습을 전혀 고려안하더라도 등록금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이제 인문 자연 공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나. 예를 들어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물리학 복수전공을 하면 등록금을 더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그럴 수는 없음. 학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학교 전체로 봤을 때 교육비로 지출되는 부분으로 봐주길 바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등록금 영수증에 실습비라고 찍혀나옴.

정현식(위원장)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별도 고지하는 것은 없음.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건설가계정은 무엇인지.

정현식(위원장)

건설중인 건물로, 완공하여 등기하기 전까지는 그 건설에 투입된 금액을 건설가계정으로 잡는 것임.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내년 총원 교원이 학과별로 확정됐는지.

정현식(위원장)

2017학년도는 T.O배정이 끝났음. 일반적으로는 총 T.O로 배정이 나오고 그 내에서 총원함. 2018년 계획은 대략 2017년 여름에 나옴.

김창배(외부위원)

2017년에 증가하는 교수님 수가 어느정도인지.

정현식(위원장)

총 인원은 줄어듦. 정년퇴직이 12명, 총원은 7~8명이 될 예정임.

김창배(외부위원)

전체 보수 예산은 이 수와 연동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인지.

정현식(위원장)

보수 예산은 좀 줄어들 것이다.

김창배(외부위원)

신부들은 별도로 교원 T.O가 있는지.

정현식(위원장)

따로 미리 T.O를 배정하지 않고, 필요시 T.O가 배정됨.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서 계획이 미리 돼 있지 않음.

김창배(외부위원)

뺏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정현식(위원장)

임용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됨.

김천일(학생회 비대위원장)

임의 기금 인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과거에 적립금 적립이라는 지출을 통해 쌓인 금액을, 올해 사용해야할 때 기금 인출이라는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개념임.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 기금으로 적립해둔 것을 올해 인출하여 수입 쪽에는 기금인출 수입이 잡히고, 지출 쪽에는 공사비로 나가게 되는 것임. 도

서관이 노후 됐을 때 쓰라고 올해 기부금이 들어왔고, 도서관 개보수를 올해가 아닌 10년 후에 하게 되면 올해는 그 기부금을 기금적립이라는 지출을 해서 쌓아두고, 10년 후에 기금 인출하여 개보수에 사용하게 되는 개념임.

김창배(외부위원)

2015년 기금이 서강대학이 320억 정도 기금이 있음. 35억 적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320억 기금에서 35억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 기금을 줄이게 한 요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요인인지.

정현식(위원장)

어느 하나가 원인이라고 집어서 얘기하긴 어렵고, 가장 큰 효과는 경영전문대학원 수입이 미달된 것이 큼.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예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현식(위원장)

요새는 거의 안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갑작스럽게 공과금, 과태료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정현식(위원장)

학교 재정이 어려워져,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도 최소한으로 편성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현리인성교육원 수익을 내려고 계획 한건지.

정현식(위원장)

학교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없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현리인성교육원 운영비도 편성이 안 돼있는지.

정현식(위원장)

편성 안 돼있음.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법인회계에서 정인육캠프 같은 캠프운영이 어떤 항목인지.

이도행(법인추천위원)

정인육 캠프는 목적사업으로, 정인육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중인 사업임. 수익사업은 아니고

들어온 돈을 그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있음. 마포캠프는 마포구청하고 하는 수익사업으로 그 건 금액이 남으면 목적사업으로 진출하고 있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성찰과성장에 추가 비용을 내는 논의가 있었는지.

정현식(위원장)

처음 브레인스토밍 단계 때 제기된적 있으나 그 이후 논의된 내용은 아님.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현리땅을 팔 수 없는지.

정현식(위원장)

기부자의 뜻이 있어서 팔 수 없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ACE사업이나 LINC사업은 학부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만일 현리인성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정현식(위원장)

조정이 있을 수는 있음.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해야 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ACE, LINC 사업 등 사업별로 지출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정현식(위원장)

각 사업 담당하는 곳에서 알고 있음. 등록금과 상관없다고 생각됨. 학생회 차원에서 각 사업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해봐야 할 것임.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음.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성평등상담실 등은,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기구이고,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현리 인성교육원 등으로 전용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음.

김창배(외부위원)

총장의 철학을 반영해서 프레임을 짜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거 아닌지.

정현식(위원장)

현재로서는 정말 학교의 기본만 예산을 짜놓은 상태임.

MBA원우회장

경영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지.

정현식(위원장)

의미 없는 자리는 아님. 보직자회의에서 학장님께 말씀을 드렸음. 과거 직장인 위주의 학생 구성과 달라 현재 구조를 고려해 달라. 원우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학장님께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람. 제기한 문제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뜻을 전달하기를 바람.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대학알리미 대학원 자체평가를 보면, 2016년부터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난건지.

정현식(위원장)

대학원 수업료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장학금 안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임. 예를 들어 이공계는 SCI급 논문 출간이 되면 장학금을 주고 있음. 세부 장학금 명칭은 대학원 행정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

정현식(위원장)


학교의 등록금 책정안은 0.9%인상안을 제시,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3. 차기 회의일정 결정


-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1월 6일(금)에 진행하기로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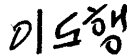
2017. 1. 12

위의 사실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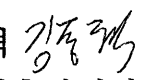
위원장 : 정현식 기획처장 


(교직원 위원)


윤권석 
기획예산팀장


이도행 
학교법인 법무감사팀

(학생위원)


김종혁 
대학원총학생회장

이원석 
주간MBA 원우회장

김천일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정진성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외부전문가)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